

**시설팀의 안전무시 일방적인 인력감축 · 업무통폐합!
이제 와서 아니다!? 효율적 관리위해 사무실만 합친다?**

병원에 닥칠 대참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일 경, 3개 병원 시설팀에서 부서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부서 간 통폐합을 통보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또한 10월 12일 경,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합의, 부서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부서 통폐합을 위한 공사를 실시한다는 입찰 공고를 올렸다.

곧이어, 3개 병원 시설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조치는 반드시 환자 및 직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 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3개 병원 시설팀장 모두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합치는 것이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욱이 안암병원 이** 부팀장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는 말로 막가파식 운영의 정수를 보이느라 하면 부서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말에 부서원들에게는 “찬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고 말했다고 한다.

앞에서는 업무 통폐합 아니라 하고, 뒤에서는 사무실 공사 입찰 공고 진행!

밥 먹듯 말 바꾸는 의료원과 시설팀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우리지부는 시설팀장들의 일방적인 정책을 폐기할 것을 의료원과 병원 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그 사이 의료원과 시설팀장들의 확인이 오간 후 10월 12일 의료원 노무팀에서 노동조합으로 “인력감축과 업무 통폐합이 아닌 사무실 통폐합이다.” 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원은 지난 같은 날 오후 의료원 사이트에 사무실통폐합 공사 입찰 공고를 올렸다. 이 같이 앞에서는 업무통폐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뒤에서는 준비를 해 가는 의료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지부는 이러한 의료원의 이중적인 작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사무실 통폐합으로 업무 효율성 높아겠다는 시설팀의 운영 정책

비용낭비, 인력낭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의 산실이다!

구로병원의 경우 전기실과 방재센터를 합친다고 하는데 전기실은 신관 지하 4층에 있으며 관리해야 할 병원 메인 특고압 설비들 한복판에 있다. 그런데 이전 할 사무실은 신관과 떨어진 시설팀 사무실 3층이다.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전 같은 바로 뛰쳐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설비를 보러 가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골든타임을 놓쳐 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보는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될 대 참사는 누가 지게 될 것인가. 안산병원과, 안암병원 자동제어실과 기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설비에 대한 대응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곳에 사무실을 만든 것인데 굳이 통폐합 할 이유가 있는가 말이다! 또한 사무실 통폐합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구로 8,300만원 안암 6,500만원 안산 6,200만원으로 총액 2억이 넘어가는 대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팀장들이 굳이 사무실을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나중의 인력 감축과 업무 통폐합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불 보듯 뻔하다! 차라리 지금 사무실의 리모델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든가 인력을 충원해 더욱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시설팀 통폐합은 병원의 안전,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

세계에서 안전한 병원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고들 중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20명의 환자와 간호조무사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환자 43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한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 사건들은 병원의 인건비 절약과 효율을 위한 시설관리의 미비가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나 고대의료원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운영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팀 직원들은 전기, 소방, 자동제어, 설비 등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해 이에 따른 근무지로 배치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렇기에 병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담당 부서가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통폐합 한다면 오히려 전문성은 결여되고 업무의 혼란만이 가중될 것이다. 외과전공의에게 업무의 효율을 위해 내과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는가! 더욱이 시설팀 직원들은 주야 맞교대로 인해 야간 근무를 14~15시간을 하고 교대 근무자가 없어 연장근무를 시행할 시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등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력 충원은커녕 추가적인 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강도만 높아져 병원의 시설 안전과 관리는 더욱 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각 부서별 전체업무 파악을 통해 각 부서의 고유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시설팀장들이 말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해답일 것이다.

또한, 이번 시설팀 통폐합은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 19조(근로조건의 위반) 1항 위반, 단체협약 제 28조(고용안정) 2항에 대한 위반이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동의 및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같은 절차는 생략 된 채 진행되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시설팀의 비효율적 통폐합 운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업무 통폐합이 아니라는 의료원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라!

우리지부는 직원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병원의 효율만을 강조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설팀의 통폐합 계획을 반대한다. 또한 시설팀장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직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는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우리지부는 이 사건을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미지 실추와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되는 모든 결과는 분명 의료원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의료원과 시설팀은 업무에 대한 통폐합이 아니라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